

기रो에 선 ‘위드 코로나’... 자영업자들 다시 가슴 졸인다

‘하루 역대 최대’ 첫 4천명대 확진... 수도권 ‘비상 계획’ 검토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경기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서 한 ‘비상계획 긴급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자영업자들도 다시 가슴을 졸이고 있다.

24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1천184명으로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기준 신규 확진자도 4천166명으로 처음으로 4천명대를 돌파했다. 확진자가 늘어나며 수도권에 중심을 병상 부족 현상이 빚

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기도의 중증 환자용 271병상 중 220병상(81.2%)이 가동되는 중으로, 정부의 비상계획 긴급검토 조건인 75%를 훌쩍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들도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과 함께 재개한 본격적인 영업을 중단하게 될까 마음을 졸이는 모습이다. 안양시 안양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강모(34)씨는 “위드 코로나 노래방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은데

“직원 늘렸는데... 타격 더 클 것”

“개인방역 점검은 소홀” 불만도

경기도 중증 병상 가동률 81.2%

백신효과 감소 “반복 접종 필요”

비상계획이 시행되면 손님이 더 줄 것 같다”고 말했고, 수원시 인계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박모(60)씨는 “외식업이나 술집 같은 곳이 방역이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 위드 코로나가 적용되면서 매장 직원 절반을 늘

린 상태인데 정부가 방역 수칙을 바뀐 옥 켜면 그전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단체들도 우려를 표한다. 조지현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고 위드 코로나지만 소비자들도 이 움직이고 있어 매출 회복이 더디다. 실제로 다중시설 확진자가 적다는 증거 자료가 많은데 정부가 개인 방역 점검은 소홀히 하고 모든 탓을 자영업자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가파른 확진자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빚어진 원인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백신 효과를 꼽았다. 시해진 가천대학교 감염병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 위험군이 2차 접종을 진행하고 6개월 이상 지나 효과가 떨어진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젊은 층의 이동량이 증가해 감염이 확산됐다”며 “독일은 3차 접종까지를 접종 완료로 보자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백신 지속기간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 접종처럼 코로나도 반복적인 접종이 필요하다. 중증환자들이 누적돼 병상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비상계획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조수현·이재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기업인 여러분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경인히트상품 인증서 전달식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는 혁신과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기관들이 ‘2021 경인 히트상품’을 수상했다.

경인 히트상품이 올해 30회째를 맞은 가운데, 24일 경인일보 본사 연회장에서 열린 시상식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속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자자체 부문’에서 4개 지자체, ‘기업체 부문’에서 26개 기업 등 모두 30곳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로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여러분이 경기도의 지력”이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해주는 한편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어려운 시기이지만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같은 하든 챔피언들의 혁신의 기운”이라며 “경기도도 겸손하고 진중하게 ‘히트’ 기업들을 돕겠다”고 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도 “혁신의 눈을 갖고 실질을 따지지 않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세상을 점점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장간 76주년을 맞은 경인일보는 수도권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 연륜에 걸맞게 여러 사업을 이끌고 있는데 경인히트상품이 대표적이다. 올해 30회를 맞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일을 잊지 않고 혁신을 이어온 지자체와 기업들에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i@kyeongin.com

합계출산율 0.86 또 떨어진 경기도

올 3분기 전년 대비 ‘0.03’ 하락

9월 혼인 4031건... 소폭 감소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의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86으로 지난해 3분기 0.89보다 다소 하락했다.

전국 평균(0.82)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지만 2019년 0.94였던 합계출산율과 비교하면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전국 9월 출생아 수는 2만1천920명으로, 전년 대비 1천579명 줄어 6.7% 감소했는데, 1981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혼인건수도 줄었다. 전국 9월 혼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 경기도 역시 올해 9월 4천31건으로 지난해 9월 4천196건보다 조금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혼인이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혼인과 출산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분도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9월 1천755명이었던 반면 올해 1천37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 전입자 수가 15만3천172명으로, 전출자(14만6천647명)보다 많아 순유입이 6천525명으로 집계됐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혁신의 아이콘들 24일 오후 경인일보 본사에서 열린 ‘2021 경인 히트상품 시상식’에서 부문별 수상자들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흥규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마케팅부장,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현직 장관 유은혜·전해철 ‘경기도지사’ 출마할까

대선 정국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계도 점차 빨라지면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주목되는 현직 장관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더불어민주당)에선 안민석(오산)·조정식(시흥)·김태년(성남수정)·박광온(수원정)·박정(파주)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자전타전 거론되는 가운데 경기도에 뿌리가 깊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산상록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향후 거취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이 정미경 최고위원을 비롯해 심재철·신상진·정병국 전 의

거취 따라 선거구도 요동 가능성

출마 결심엔 대선 이전 사퇴할듯

청와대, 인사청문회 등 개각 부담

유측 “늦지 않게 결정, 지켜봐달라”

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가 우선”

원 등 야권 인사들도 이들 장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의 출마 자체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중앙 및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여론의 단면은 대선 전 개각 가능성과 맞물린다. 현직 장관들이 출마를 위해 직을 내던질 경우, 그 시점은 이르면 연내 또는 늦어도 대선(3월9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이전 현직 장관들이 ‘출마 러시’에 나설 경우, 청와대로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대적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핵심인사들도 현직 장관의 ‘막판 등관설’을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세종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

는데 무슨 개각을 하느냐”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 측은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추후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했고, 전해철 장관은 “개인적 정치일정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소신이 확고한 상태(11월17일자 14면 보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유 부총리와 전 장관이 정권의 시선을 의식해 ‘대권 잠룡’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경기도지사의 꿈을 접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도내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배출한 경기도지사 직은 정치인에게 매력 넘치는 자리 아니겠느냐”면서 “이들 장관을 비롯한 상당수 후보군이 이미 별도의 선거 조직이나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소기업·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니까
언제든지 노란우산

연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연 복리 이자 지급
공제금 압류 금지
경영·심리 무료 상담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